"독일같은 이웃이 부럽다"

metro

메트로 2013년 8월 22일 목요일

다저스 악동 "세 번은 못져"

안 찾아간 연금저축 1537억원

NEWS p/02

中 소변 조준 잘못하면 벌금형

WORLD p/04

울고싶은 크레용팝

ENTERTAINMENT p/16

"원더걸스 선미는 잊어줘요"

metro
메트로 2013년 8월 22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68분 8810m "살아있네"

창덕궁 달빛기행 참가자들이 달빛과 청사초롱의 조명 사이로 고운 자태를 뽐낸 후원의 주합루와 1000㎡ 넓이의 넓은 못으로 주합루를 넘어선 부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고 있다

고궁 거닐며 달빛샤워 '황제의 힐링'

예매시작 3분이면 완판되는 '창덕궁 달빛기행' 2시간 호사에 마음까지 '뽀송'

"광클(빛의 속도만큼 빠른 클릭을 뜻하는 인터넷 은어) 끝에 겨우 궁궐에 입성하니 담에서 계수나무가 보이네요."

지난 20일 오후 7시33분 궁을 지키는 수문장이 서울 종로구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을 밀고 나왔다. 삼삼오오 줄어져 있던 관객들의 흥분된 시선이 일제히 수문장을 향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인터넷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 시작 3분 만에 '완판'된 바로 그 '창덕궁 달빛기행'의 시작이다.

3년 전 출발한 달빛기행은 창덕궁을 최소한의 불빛과 소음 속에서 궐내를 둘러보고 궁중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 이벤트다.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이라 조명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달빛을 보면서 입장해주세요."

문화재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돈화문을 들어서자 문 건너편 4차선 도로의 소음은 이미 옛시다 산골이 아닌 듯 멀어진다.

관람객들이 조명을 받으며 고운 단청을 뽐내는 인정전을 관람하고 있다(위). 달빛기행의 하이라이트인 연경당 전통공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제공

◆ 달을 청사초롱만 불 밝혀

관람객은 소선시대 양반인 양 말소리를 낮췄고 걸음 속도를 늦췄다. 인정전을 등지고 조정을 바라보던 한 관람객은 "청사초롱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꼭 신하 같지 않아?"라며 같이 온 여자친구에게 웃어 보였다. 3분 후 출발한 다른 팀 관람객은 졸지에 신하가 됐다.

후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합루는 불빛을 받아 고운 단청 빛깔을 뽐내고 있다. 바로 앞의 부용지가 1000㎡ 넓이의 넉넉한 품으로 주합루를 비춰낸다.

연경당으로 넘어가는 길은 키 큰 소나무가 달빛을 숨겨 어둠이 내려앉는다. 총총히 떠가는 관람객의 청사초롱 불빛이 창덕궁과 어우러지며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30여 년 만에 부인과 궁궐 데이트에 나섰다는 석모(62)씨는 "신혼 기분이 난다"며 만족해했다.

◆ 매달 보름달 뜨는 5일만 개방

달빛과 함께하는 호사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을 전후해 딱 5일만 누릴 수 있다. 인원은 하루 100명씩. 혹한·혹서기를 제외한 봄·가을 6개월만 개방하기 때문에 1년 관람객은 3000명(외국인 1200명 포함) 남짓이다. 1인당 비용은 3만원으로 비교적 고가다.

가족과 용산에서 달일지기로 상경한 고점숙(39)씨는 "동네에서 네 집이 신청했는데 컴퓨터 두대로 예매전쟁은 치른 말 덕에 우리만 성공했다"고 말했다.

안전상 이유로 자유 관람은 제약되고 관람객은 20명씩 5팀으로 나눠 움직인다.

이렇게 까다로운 달빛기행에 '광클'하는 이유는 뭘까.

강민규(33)씨는 "달빛 속에서 자분하게 천천히 걸으며 바쁜 낮 시간을 돌아볼 여유를 즐길 수 있어 더 좋았다"며 "멀리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달빛기행 해설을 맡은 문화재해설사 이종준(30)씨는 "평요 이상의 빛에 노출됐던 도시인이 궁궐의 고즈넉함에 운치를 더하는 달빛을 통해 도시의 흥분과 다른 차분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하나기자 orias010@metroseoul.co.kr

다리 꼬아도 될만큼 간격 넉넉 의자 40도 젖혀지고 '콘센트'도

호남고속철 '1호 열차' 공개

1일 처음으로 공개된 호남고속철 1호 열차(위)와 공간이 널찍해진 객실 내부

/뉴시스·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4월 KTX 산천을 기반에 제작에 들어간 호남고속철도용 열차가 1년4개월 만에 완성됐다고 21일 밝혔다.

열차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고 시속은 KTX 산천과 같은 330㎞이다. KTX 산천 운행 초기에 자주 발생한 결함을 분석해 모터블록(전기를 동력으로 전환하는 장치)을 개선하는 등 주요 고장 원인을 제거했다.

승객 편의를 위한 기능에도 신경 썼다. 무릎과 의자 사이의 거리를 143㎜에서 200㎜로 57㎜ 늘리고 앞좌석 아랫부분에 있던 무거운 테이블을 위로 올렸으며, 좌석 각도도 1도 정도 더 뒤로 젖힐 수 있게 했다.

특히 노트북·모바일 기기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해 모든 좌석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한편 객실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고자 4G 모뎀을 채택했다.

공단은 앞으로 3개월간 현대로템 창원공장 내 시운전선에서 각종 기능을 확인한 뒤 오는 11월부터 경부선과 호남고속철도 운행선(정읍~익산)에서 10만㎞의 시운전을 통해 열차의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전기요금 폭탄 사라진다

서민 부담주던 주택용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연료비 연동제 시행키로

전기요금은 연료비를 연동해 책정되고 주택용 누진제는 축소하는 등 체제 개편이 추진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21일 회의를 열고 안정적 전력 수급과 원전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련된 전력 수급 개편안은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에너지원 간 대체 소비 왜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격이 기반한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 등 계절별·시간별 차등 요금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누진율을 완화할 예정이다.

뜻깊은 선물 받는 박 대통령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나눔 봉사를 실천해 온 3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에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씨가 부친가를 전달하고 있다. 이씨가 전달한 것은 이씨의 선친이 1977년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사진이었다. /청와대 제공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이를 3단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 대부분의 소비자 사용량인 20~600㎾h 구간은 단일 요율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 국가간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해 원전산업 관리 감독 체계 개선, 원전 기기·부품 경쟁 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을 향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윤희기자 ss0030@metroseoul.co.kr

"시 한 수 써볼까"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현궁에서 열린 제21회 전국한시백일장에서 유건·도포를 차려입은 참가자들이 한시를 짓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연금저축 들고도 안 찾아간 돈 1537억

연금저축 상품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1500억원 넘게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연금 개시 시점이 된 연금저축 상품은 33만371건으로 이 가운데 14만7931건의 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3만 건의 총 적립금은 4조7154억원으로 이 중 5323억원은 적립금만 쌓여있을 뿐 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미 금융사가 고객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연금액은 1537억원이다. /조한진기자 hjc@

'눈칫밥' 워킹맘들의 경고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최근 영국의 한 법무법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워킹맘' 4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취업 여성의 33%는 직장에서 승진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임신했을 때 회사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8%에 달했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일하는 엄마들은 직장 내 '눈칫밥'을 먹느라 서러운 것 같다.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는 여성이 낳을 수밖에 없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도리'를 다했을 뿐이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회사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부 경영자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며 남성 인력을 선호한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여성이 남성과 사회 노동인구의 한 축을 구성하며 기업과 국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워킹맘을 포함한 여성 노동력을 홀대할 경우 그 타격은 엄청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이후로 노동인구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 노동력이 OECD 평균보다 10% 낮은 한국의 앞날은 더 암울하다.

커리어우먼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집안일과 육아에 발목이 잡혀 경력을 썩히고 있는 여성들.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한 거다 될 수도 있다. '미가씨' 못지 않은 실력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무르익은 중년의 내공이 더해진 '아줌마'는 최고의 준비된 일꾼이 아닐까?

'폐렴 위독설' 이건희 삼성 회장 주말께 퇴원

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퇴원한다.

21일 삼성그룹은 브리핑을 열고 "이 회장이 폐렴으로 일주일째 입원 치료 중이다. 경과가 좋아 주말께 퇴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간에 나돌던 '위독설'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23일로 예정된 신경영 20주년 기념 만찬을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달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는 참석할 전망이다.

음주 등반사고 예방 캠페인 보건협회, 청계산에서 진행

대한보건협회는 음주로 인한 등반 사고를 예방하고 등산로 주변의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 산행, 산악 사고의 원인입니다'라는 슬로건하에 음주 계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계산 등산로에서 홍보물 배포와 가상 음주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세미기자

요금 뒤에서 넷째…사용량 앞에서 넷째

'한 푼이라도 싼 것 찾아 클릭클릭' 대한민국 스마트 컨슈머, GDP 대비 0.2% 불과한 수돗물은 아낌없이 펑펑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30대 전업주부 A씨는 고장 난 선풍기를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켠다. 인터넷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매장을 찾는다. 이른바 스마트 컨슈머로 불리는 이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원하는 상품의 정보를 찾고 상품 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그러나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재인데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상품이 있다. 바로 수돗물이다. 매달 청구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적힌 요금 외에 소비자들은 수돗물에 대해 얼마나 알까.

한달 생활비에서 수도요금은 얼마?

가계지출 2,740,680원

0.62%

◆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7.9%에 수돗물 공급

환경부의 201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2개 지방 상수도 사업자(특별·광역시 7, 특별자치도 1, 시 73, 군 81) 및 1개 광역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전체 인구의 97.9%인 약 5063만8000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2011년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619.3원/㎥이고 생산원가 대비 요금 수준은 76.1%로 100원어치 생산 가격 24원이 적자인 채로 공급된다.

◆ 국제적으로 수도요금이 저렴한 반면 사용량은 많아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인 세계물정보(GWI)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물 사용량을 조사해 발간한 '2012년 상하수도요금조사'에 따른 우리나라의 2012년 상수도 요금은 0.58$/㎥(653.66원/㎥, 2012년 평균 환율 = 1127원)이고 가정 사용량은 하루 1인당 552ℓ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19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인도·중국·러시아에 이어 4번째로 수도요금이 저렴한 반면 수돗물 사용량은 캐나다·폴란드·호주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지출에서 수도요금은 0.62% 정도

통계청의 2008년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에 따르면 수도료는 1만6881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0.62%인 반면 수도료 대비 통신요금은 7.79배인 13만1500원, 대중교통비는 3.34배인 5만6315원, 전기요금은 2.63배인 4만4416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미용에는 수도료 대비 2.06배인 5만6455원을 지출했으며 담배에는 수도료 대비 1.2배인 2만0177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 비교에서는 우리나라는 0.2%로 일본 0.3%, 호주 0.4%, 스웨덴 0.5%, 영국 0.6%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수질 검사 기준 초과율 약수터 25.4%, 수도꼭지 0.02%

환경부의 2012년 환경통계연감의 수질 검사 기준 초과율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9%, 소규모 수도시설 3.7%, 약수터 25.4%에 비해 정수장은 0.1%, 수도꼭지는 0.02%로 집계됐다. 지하수 우물물·약수보다 수돗물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현동 동국대 교수(생명학 박사)는 "우리는 약수터에서 물 한 바가지는 아무 거리낌 없이 들이켜지만 수돗물을 마시는 데에는 인색하다"며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명]

매주 토요일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1004봉사단 활동하는 '조용한 수다'

춤추는 수화공연단 부산역 '시끌벅적'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규) 1004자원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조용한 수다'(이하 '조수다')는 매주 토요일 코레일 부산역을 찾아 특별한 공연을 펼친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흡사 댄스 동아리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수화를 전문으로 하는 공연 봉사단이다. 흔히들 수화 공연이라고 하면 한자리에 서서 손의 움직임으로 노래 가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조수다의 공연은 조금 색다르다. 댄스니 율동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악기나 도구 등을 활용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함께 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이 수화 공연에 다른 요소를 가미하게 된 것은 청각장애인 등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하루 종일 이용객으로 붐비는 부산역을 공연 장소로 선택한 것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수화를 알길 원한 조수다의 아이디어이다.

조수다 봉사단은 수화를 좋아하고 공연을 통해 수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뜻을 모을 수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려있는 자원봉사단체다.

17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연령도 18세부터 36세까지 다양하고 직업도 각양각색이다. 김석휘 단장은 "조수다 활동이 수화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소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소박한 마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역 외에서도 상시 공연을 열고 있는 조수다는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부산 전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히 공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수다를 통해 많은 이들이 수화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기자명]

MBC건축박람회 29일 개막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33회 MBC건축박람회가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건축자재·인테리어·전원주택·창호·냉난방 기기·건축설비 등 건축과 주택 등에 관련한 모든 분야가 망라된다.

총 400여 업체가 준비한 3000여 가지 최신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02)730-0366

다문화가족 초청 우체국체험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김기덕)은 20일 다문화가족 30여 명을 초청, 우체국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우표박물관·우정총국 등을 견학하고 1년 후 가족에게 발송할 소망편지를 작성했다. 또 21일에는 서울지방우정청이 후원하고 KBS가 주관하는 '행복콘서트' 공연도 관람했다. 행복콘서트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 KBS 해피FM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통해 방송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작가명

중국의 덩샤오핑 태어나다

1904년 8월 22일 중국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덩샤오핑이 쓰촨성의 한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6세에 이미 프랑스와 러시아에 유학한 덩은 귀국 후 중국 공산당의 지하 운동을 이끌었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대장정에 참여하는 등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으나 실용주의 노선이 마오의 갈등을 빚어 문화대혁명 때 실각했다. 70년대 말 복권한 그는 90년대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97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베 日총리 보고 있나요? 나치수용소 앞 고개숙인 독일 총리의 이 모습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남부 다하우에 있는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독일 총리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메르켈 총리는 헌화한 뒤 "이곳 수감자들의 운명을 떠올리면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다. 역사와 현재의 다리가 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다하우 수용소에서는 강제 수용된 유대인 동성애자 20만 명 중 4만3000여 명이 학살당했다. /AP 뉴시스

亞 금융위기설 한국은 괜찮나

금융전문가 "태국까지 위험하지만 한국 안전"

인도발 외환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위기가 한국까지 퍼지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밀려들어 왔던 싼 자금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출구전략 모색에 따라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1990년대에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외환 및 신용 위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통화 주가 폭락이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HSBC에 따르면 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2009년 55%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80%까지 늘어났고 전체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80%에 달한다. 산유국인 말레이시아 역시 비슷한 부채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재정은 지난 10년간 흑자였으나 무역수지 탓에 올해는 적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HSBC의 프레드 뉴먼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각국은 싼 자금이 밀려오던 시기에 구조 개혁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으며 이제 기회는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먼은 "모든 신흥시장 국가들이 선진국 투자금 이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필리핀은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세기의 재판' 어수선한 중국 중국 경찰들이 21일(현지시간)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위를 벌이던 보시라이 지지자를 끌어내고 있다. 대관 중국시보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재판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져 이날 이 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보시라이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서 '동해 병기' 교사지침서 첫 승인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가르치도록 하는 교사지침서가 미국에서 처음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재미 관안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은 최근 동해 병기에 관한 교사지침서를 작성해 관할 공립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지침서는 "동아시아 지리를 가르칠 때 교과서에 '일본해'라는 명칭만 있다면 명칭에 대한 논란을 학생들에게 설명해달라. (수업 중에) 그 지역의 지도를 만들 때는 학생들에게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쓰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배기자

소변 '조준' 잘못하면 中, 벌금 1만8000원

변기 밖으로 소변을 흘리면 100위안(약 1만8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다음달부터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어느 정도 양이 튀면 과금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 소변 보는 사람 뒤에는 소변이 똑바로 나가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서 있을 것 같다" "모든 화장실에 평균 20개의 직업이 새로 생길 것 같다"며 비웃었다. /미국배기자

'월세 대출' 상품 쏟아진다

금감원, 시중은행 독려…이르면 이달말 출시

주요 시중은행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월세 대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인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판단 아래 월세 압박을 덜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내놓도록 시중은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월세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돼 있다며 월세 대출 상품 활성화를 강조했다"면서 "월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전 은행으로 늘리고 대출 대상도 확대해 원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으로 유사한 월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보증보험의 월세 보증금 담보 보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뒤 세입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내거나 보증금의 90% 내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기업은행도 월세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하나은행은 기존 전세대출 상품 가입 대상에 반전세 세입자도 포함해 금융감독 당국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다. /김근성기자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1887.46 (-20.39)
코스닥 530.54 (-7.03)
금리 2.87 (+0.03)
환율 1118.50 (변동 없음)

뉴스 & 뉴스

기아차 '커리어 투어' 도입

● 기아차는 달스팩 채용 프로그램인 커리어 투어(Kareer Tour)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커리어 투어를 통한 채용 신청은 다음달 2~10일 기아차 채용 사이트(recruit.kia.co.kr)에서 접수한다.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대졸 공채와 인턴 채용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일정 비율을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채용 노하우는 스카우트-K 역시 ▲자동차 파워블로거·자동차 경진대회 입상자 ▲교통사고 유자녀 등 병주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인재를 수시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국명기자

연금복권520 제112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2조	817237
		7조	743182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334632
4등	100만원	각조	18315
5등	2만원	각조	040
6등	2000원	각조	08 13
7등	1000원	각조	0 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 겸 편집인 : 남궁호
사장 겸 편집인 : 김중학
편집국장 : 조인호
광고국장 직대 : 김관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5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95

공인인증서 'PC 대신 USB' 저장

가짜사이트 통한 금융사기 '파밍' 피해 예방요령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금융사기 범죄 '파밍'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파밍은 컴퓨터를 미리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전자 금융거래 정보인 예금주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파밍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계좌에서 돈을 편취해가는 신종 수법이다.

범인들의 인터넷뱅킹 접속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데다 금융기관에서도 별다른 보상 규정이 없어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밍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평소 꼼꼼하게 점검하고 예방해야 한다.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등은 컴퓨터와 e메일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USB 메모리 같은 보관 장치에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윈도와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출금 계좌번호 역시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뱅킹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보안카드 번호는 전부 입력하지 말고, 은행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현우기자 mini@metroseoul.co.kr

가을보다 먼저 온 가을 전어 현대백화점이 21일 서울 압구정점에서 제철을 맞은 전어를 선보이고 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올해 어획량이 증가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50%가량 저렴하다. /뉴시스

'시니어론 펀드'가 뭐지?

미국발 금리상승 대비 최근 공모형태 출시 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한 금융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투자등급 이하인 기업에 간접투자하는 시니어론 펀드다.

2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신한BNPP파리바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우리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공모 형태의 시니어론 펀드를 선보였다.

최근 미국에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된 데 이어 국내에도 상륙했다. 올 상반기 고액 자산가 중심의 사모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 하반기 들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니어론은 은행 등 금융사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S&P 기준 BBB) 이하인 기업들에 담보를 잡고 변동금리(리보금리+스프레드)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지만 시니어론은 금리가 오르면 리보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소폭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시니어론은 선순위 담보대출로서 기업 부도 시 70% 수준의 자금 회수율을 보장받는다. 마찬가지로 투기등급 기업에 투자하지만 대부분 담보가 없는 하이일드 채권보다 안정적이다.

시니어론 펀드는 여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시니어론 펀드 역시 손실이 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들의 부도율은 2%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의 경기가 나빠진다면 투기등급 기업들의 부도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마감임박
반짝 SALE
Special Day and Time
매일 매일 특별한 시간, 놀라운 가격!

부동산단신

홍은 '동아 더프라임 아파트'

동아건설이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지하철3호선 홍제역 도보 6분 거리에 동아 더프라임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59㎡(24타입)와 74㎡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다. 4·1대책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문의 02)720-8222

제주 협재 '별모리아 리조트'

골든나래개발 리츠에서 시행하는 별모리아 레지던스 리조트는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해 뛰어난 조망을 자랑한다. 이 레지던스 리조트는 55㎡(16평) 6900만원 투자 시 5년간 금융기관에서 276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 것이 장점이다. 문의 02)6359-2278

광주전남혁신도시 '우미린'

우미건설이 23일 광주전남혁신도시 B11블록에 공급하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우미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우미린은 지하 1층~지상 20층 16개 동, 총 1078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590만원대다. 문의 061)337-0300

'IT한류' 이번엔 오디오 차례!

삼성전자 'DA-F60' '에어트랙' 등 줄줄이 해외 호평

한국 하면 떠오르는 IT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오디오 관련 아이템 등 틈새 상품들이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음향 영상기기(AV) 신제품들이 영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온라인 소비자 잡지인 엑스퍼트 리뷰는 최근 삼성전자의 무선 포터블 오디오 'DA-F60'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베스트 바이에 선정하며 "포터블 오디오 중 가장 좋은 소리를 출력한다"고 평가했다.

DA-F60은 복잡하고 지저분한 선 연결이 필요 없는 무선 솔루션을 지원한다.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이 내장돼 있어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금속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강조했다.

진공관 앰프를 탑재한 사운드바 형태의 오디오 기기 '에어트랙'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이 제품은 온라인 전자제품 리뷰 사이트인 트러스티드 리뷰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으며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트러스티드 리뷰는 "진공관 앰프를 사용해 LP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음감을 제공한다"고 칭찬했다.

MP3플레이어 명가인 코원의 이어폰 또한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인도의 IT 전문 매체 이그지비트 매거진(Exhibit magazine)은 코원의 프리미엄 이어폰 'EM1'에 대해 "모든 음악 마니아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이어폰이다. 값이 싸고 웅장한 사운드가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코일 단선을 방지하는 플랫 케이블과 직관적인 디자인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화 수신이 가능한 리모컨·마이크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유용한 기능으로 꼽혔다.

EM1은 현재 인도 현지 바이어의 주문이 계속 느는 중이다.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연결형 초소형 빔 프로젝터인 '스마트 빔'도 해외에서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

스마트빔은 세계적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홍콩 전자전에서 포터블 상아 빅 5에 선정됐고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즈에서 제품디자인상을 수상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SNS 피로사회'

사생활 노출 인맥관리등 이용자 대부분 부담 느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는 대인관계용, 싸이월드는 개인 기록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중 1개 이상의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 1037명을 대상으로 SNS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정보 공유'(86%), '사생활 노출'(85%), '인맥관리'(84%) 등에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복수 응답했다.

SNS 사용 목적별로는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모두 '지인의 소식을 확인하고 안부를 주고받기 위해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싸이월드는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개인 저장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 류한균 교수는 "SNS의 중심이 양적 확장을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인터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방향으로 SNS의 새 흐름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unique@

재직기간 짧은 직장인 위한 '스피드론' 대출

신규 취업으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www.slpdloan.com)의 스피드론 상품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스피드론은 재직 기간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1000만원까지 즉시 승금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기록 없는 한도 조회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1600-5858

렉서스 ES '이상적인 중형차'

렉서스 중형 세단 ES가 미국 자동차 산업 전문 분석 조사 기관인 오토퍼시픽이 발표한 '2013 가장 이상적인 차' 중형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오토퍼시픽이 매년 선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차'는 5만2000명 이상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외관 디자인과 내부 공간, 승차감, 핸들과 가속, 안정성 등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차를 선정한다.

포드의 올-뉴 링컨 'MKZ'는 J.D 파워의 '2013 상품성 만족도(APEAL)' 조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콤팩트 프리미엄 자동차 부문 1위로 꼽혔다.

차들도 휴가 후유증…곳곳 욱신

바캉스 장소 및 유형별 사후 차량점검 포인트

사람처럼 자동차도 바캉스 후유증을 앓는다.

휴가를 다녀왔다면 세차는 필수다. 바닷물 염분과 각종 소독품 찌꺼기 등이 차량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실내에 들어간 모래알과 털실 등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구석구석 청소하자. 실내 매트도 꺼내 습기와 오염 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차 실내외뿐 아니라 타이어 휠 안쪽, 휠 하우스 주변의 흙덩이도 제거해야 한다. 비포장길을 오래 달렸다면 타이어 공기압과 휠 얼라인먼트도 맞춰야 한다. 뾰족한 자갈길과 달구어진 아스팔트 때문에 타이어 모양에 변형이 생겼다면 즉시 수리점을 찾는 것이 좋다.

무더운 날씨 속 장거리 여행은 브레이크를 혹사하게 한다. 여름철에는 냉각수로 차량 엔진을 식히느라 브레이크 관리를 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브레이크에도 높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브레이크를 밟을 때의 느낌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예전보다 반응이 늦거나 차를 멈췄을 때 밀리거나 끌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즉시 정비해야 한다. 브레이크액을 비롯한 오일류도 이번 기회에 함께 점검하면 좋다.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달린 차량의 오일은 농도가 옅어지고 기포도 쉽게 생긴다.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액은 교환 시기가 남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충하거나 바꿔야 한다.

에어컨 사용으로 소모량이 많은 배터리도 챙겨야 한다. 시동을 걸 때 반응이 느리거나 소음이 나오면 배터리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렸다면 배터리 케이스나 극판이 손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내 냉방을 에어컨보다 통풍에 의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각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이달 말까지 여름철 무상 점검 행사를 벌인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아우디·벤츠 흔한 도로 위 단연 군계일학 '디자인 카'

드림카 질주 | 재규어 XF

실내 좁은 감·연비 아쉬워

재규어는 최근 뜨는 브랜드다. 한국에서 BMW, 벤츠, 아우디가 워낙 잘나가다 보니 이들 브랜드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진 데 대한 반사작용이다.

그렇다고 재규어가 이러한 성과를 거저먹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빼어나다. 비슷한 가격대의 모델 가운데서는 단연 군계일학이다.

인테리어 역시 상상력이 넘친다. 변속기만 해도 위아래로 조작하는 경쟁 모델과 달리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듯 컨트롤러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시동을 켜면 에어컨 송풍구가 저절로 닫힌다. 영화 속 부자들 금고가 책장 뒤로 사라지듯이 말이다.

다만 대형급인 XJ 덩치에 비해 실내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진다. 안전을 위해 차체를 두껍게 한 탓이므로 소비자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시승차는 2.0 가솔린 모델이다. 240마력, 34.7kg·m의 토크를 뿜어내 힘에서는 달리지 않는다. 다만 연비가 동급 대비 낮은 9.4km/ℓ라는 점은 아쉽다.

6590만원이었던 가격이 5990만원으로 600만원이나 내려 구입 부담이 줄었지만 연비를 생각하면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

2.0 가솔린 모델은 2.2 디젤 버전과 내부 경쟁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디젤 모델이 100만원 비싸지만 토크가 더 뛰어나고 연비는 4km/ℓ나 차이 나기 때문이다.

재규어만 봐도 최근 수입차 시장은 같은 집안끼리 경쟁할 정도로 라인업이 다양하고 더 세분화되고 있다. 국산차 브랜드는 갈 길이 멀다.

/박성훈기자 zen@

그리고, 유쾌한 뷰티마스터
옷 잘 입는 언니
쇼핑 잘하는 언니
트렌디한 언니
2013 08 31 SATURDAY NIGHT 23:00

'장동건 에센스' 대박 6개월간 100억 매출

장동건 에센스'로 화제가 된 아이오페 '맨 바이오 에센스 인텐시브 컨디셔닝'이 놀라운 매출 성과를 올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아이오페는 "맨 바이오 에센스 인텐시브 컨디셔닝"의 매출이 제품 출시 6개월 만에 100억원을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첫선을 보인 남성용 기능성 에센스로, 미백·주름 관리 등 피부결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애프터 셰이브와 스킨 기능이 탑재돼 사용하기 편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4만2000원)와 그루밍족(자신을 꾸미는 남성)의 증가가 맞물려 매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맨 바이오 에센스의 선전으로 올해 아이오페의 남성 라인 매출(1월 1일~8월 17일)은 지난해보다 100.1% 증가했다. /이지용기자

유통가 '판매장려금 관행' 칼댄다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이중마진' 부당성 심사 추진

중소 납품업체들의 원성을 사온 대형마트 등의 '판매장려금' 관행이 크게 개선될 방침이다.

판매장려금은 말 그대로 납품업체들의 제품이 더 잘 팔리도록 촉진하는 데 쓰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형마트에선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형식적인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이중 마진'이란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며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심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부당성 판단 기준은 판매 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무반품장려금도 금지하기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킨다'는 본래의 판매 촉진 목적과 관련 없이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문제가 된다. 또한 대형마트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에 불량품이 있더라도 반품을 않겠다며 걷는 '무반품장려금'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대형마트, 납품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23일에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향료 무첨가 페브리즈 유아용품에도 안심 사용 섬유탈취제 브랜드 페브리즈가 21일 서울 용산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아이용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 '향료 무첨가 페브리즈'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개구리 사체 분유, 공정상 불가능한 일"

남양유업, MBC보도에 반박

분유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다는 논란과 관련, 해당 업체로 알려진 남양유업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21일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제조 공정상 분유가 0.4~2.8㎜ 크기의 거름막을 7차례 통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4.5㎝ 크기의 개구리가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유 생산 라인은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외부와 차단 밀폐돼 있는 데다 분유는 고압·고온(170도) 스프레이 분사를 통해 미립자 형태로 건조되기 때문에 개구리 같은 생물이 온전한 형태로 혼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개구리 분유' 보도 화면.

분유는 수분 5% 미만의 극히 건조한 상태라 분유 완제품에 생물이 혼입된다 하더라도 삼투압에 의해 2주면 부서질 정도로 건조해지는데 문제가 된 해당 분유는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반건조 상태의 개구리가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측은 "개구리가 죽은 시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혼입 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가진 주부 염모씨가 분유에서 개구리 사체를 발견, 식약처가 이물 혼입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효순기자

시니어 속옷브랜드 '올쏘' 쌍방울 론칭 앞서 품평회

쌍방울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내의업계 최초로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제품을 선보인다.

쌍방울은 30일 시니어를 위한 내의 브랜드 '올쏘(Allsso)'의 첫 품평회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올쏘는 은퇴 이후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60~80대를 주요 타깃으로 패션과 기능성을 겸비한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이며 발열 부직포 등 제품에 쓰일 소재도 직접 개발했다.

'뷰티'·'액티브'·'베리어 프리' 등 세 가지 콘셉트로 기본 내의 외에 요실금 팬티·남녀 보정속옷 등을 주력 제품으로 구성했다.

뷰티와 액티브는 옷맵시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베리어 프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속옷과 파자마가 주요 아이템이다.

내년 초 론칭 예정으로, 트라이 직영 매장(사진) 홈쇼핑을 통해 먼저 제품을 판매한 후 전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지용기자

중소기업 명품마루 100일간 20억 판매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소기업명품마루 오픈 100일과 매출 20억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 사은 행사를 실시한다.

중소기업명품마루에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행사는 사은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동참하고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코레일과 IBK 기업은행이 주관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해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 제도를 운영,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철도역사와 중소기업 제품을 접목한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앞으로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 등 전국 주요역에 추가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지용기자

강강술래 추석선물 사전예약시 40% 할인

이달 25일까지 접수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이달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전 예약 판매에 미리 선물을 장만하려는 알뜰 소비자들과 기업체 등의 단체 주문이 몰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대 35%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달 25일까지 주문 시 5%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강술래는 이달 2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71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1700원에 판매한다. 아토피 원인인 방부제를 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선물세트(6봉)는 2만4600원에 선보인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찰진한우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5100원,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2만9100원에 판매한다.

매장 인기 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8㎏)는 5만7000원, 한우불고기2호(3.6㎏) 10만4500원, 술래양념1호(소갈비 16대) 7만6000원에 선보인다.

대표 메뉴끼리 적합한 술래실속(술래 16대+한우불고기 1.8㎏)은 12만3500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2.4㎏)는 13만3000원, 한우정성2호(등심+채끝+국거리 2.4㎏)는 18만500원이다.

'뻣뻣한 뒷목' 방심했다간 전신 마비

알고보면 무서운 질환 '목디스크' 초기 치료 중요
고개 앞으로 빼거나 숙이는 자세 피하면 예방효과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쉽게 목이 뻣뻣해짐을 느낄 수 있다. 보통 목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가 통증을 부르는데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과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각종 척추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목디스크다.

목디스크는 경추(목뼈) 사이에 위치해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목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 목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통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격이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되며, 오래 앉아있으면서 고개를 앞으로 빼거나 숙이는 경우도 해당된다.

목디스크가 발생하면 우선 뒷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등·팔·손에도 저린 현상이 나타난다. 두통, 어지러움, 시각 이상 등을 동반할 수도 있으며 증상이 심각하면 하반신 및 전신 마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 방치하고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행히 질환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물리치료·운동치료 등으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면 다양한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빈번히 시행되는 시술로는 플라즈마감압술이 있다.

●30분 내외의 플라즈마감압술 시술로 목디스크 치료

플라즈마감압술이란 1mm 정도의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튀어나온 디스크 내부에 넣은 뒤 플라즈마 열을 발생시켜 디스크를 감압시키는 치료법이다. 이로써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플라즈마감압술은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마취 아래 30분 내외의 시술로 치료를 마칠 수 있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낮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시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세바른병원의 정섬삼(사진) 대표원장은 "목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는 오랫동안 목을 구부리거나 앞으로 빼는 자세이기 때문에 고개를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도 목디스크의 원인이 되므로 스마트폰을 10분 이상 사용한다면 틈틈이 목을 좌우와 위 아래로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도 목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illegible]기자

민간요법 믿다간 여드름 흉터 키운다

대한여드름학회 캠페인… "화농성 띠면 전문의 치료를"

여드름을 경험한 국민 10명 중 9명이 여드름으로 얼굴에 흉터가 남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지만 대부분이 비전문적인 치료 방법으로 여드름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여드름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 한국인 여드름 인식 및 치료 현황'을 발표하고 여드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여드름 신호등'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여드름학회가 최근 13~40세 미만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5%가 여드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중 87%가 흉터가 남는 중등도 이상의 여드름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등도 이상의 여드름 환자는 흔히 좁쌀 여드름으로 불리는 면포 이외에 화농성 여드름을 합한 개수가 11개 이상인 환자를 말하며 이때부터 여드름이 염증성 병변으로 변하면서 흉터 등 추가적인 피부질환을 야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드름 환자들은 민간요법 등 비전문적인 치료 방법으로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흉터를 가진 중등도 이상의 여드름 환자 중 16%만이 피부과 방문 경험이 있었으며 환자 중 81%가 화장품이나 민간요법 등 자가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등도 이상의 여드름 환자 절반 정도가 치료 등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 질환 악화를 경험했으며 이 중 87%가 자가 치료 등 비전문가적 치료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여드름학회는 여드름 신호등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드름 신호등 지침'을 공개했다. 여드름 신호등은 자신의 여드름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 피부과를 방문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질환의 특징을 신호등의 3단계로 정리했다.

첫 단계인 녹색은 좁쌀 만한 여드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음은 노란색으로 좁쌀만 한 여드름과 붉은 여드름(화농성 여드름)이 나타나는 시기로 여드름 개수는 10개 미만인 경우다. 만약 노란색 단계에 해당된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빨간색은 여드름의 개수가 합쳐서 10개가 넘어가는 단계로, 이때 전문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대한여드름학회 김낙인 회장은 "여드름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평생 피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여드름 신호등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illegible]기자

'이른둥이 스토리' 공모전

대한신생아학회 진행

대한신생아학회가 '제2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른둥이, 즉 미숙아는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이하거나 재태 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를 말하는데, 이른둥이는 신체 장기 발달이 미숙해 생후 2~3년 동안은 적극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매년 이른둥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부족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생아학회는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올해도 추진한다.

우선 '이른둥이 사연 공모전'을 개최한다. 형식과 분량의 제한 없이 ▲이른둥이 성장 스토리 ▲이른둥이 치료·수술 등의 사연 ▲이른둥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주제로 편지,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접수받는다.

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캠페인 사무국 e메일(preemielove@hanmail.net)이나 캠페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preemielovecampaign)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생아학회는 이른둥이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국 병원 건강 강좌와 이른둥이 희망 찾기 기념 봉사인 허그데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삼성서울병원 토요진료

삼성서울병원이 오는 31일부터 토요 진료를 실시한다.

토요 진료는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개설되며 각종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 MRI, CT 등 대부분의 검사도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토요 진료가 실시되면 평일에 병원을 찾기 힘든 직장인과 학생 등의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환자의 입장에서 토요 진료는 평일보다 여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02-3410-3000) 및 홈페이지(www.samsunghospital.com)를 통해 가능하다. /[illegible]기자

소녀에서 여인으로~ 섹시가수로 불러줘요

원더걸스 탈퇴 3년7개월만에 솔로 데뷔.. 선미

10대 후반을 원더걸스의 막내로 보내다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선미가 스물두 살의 어엿한 성인이 돼 돌아왔다. 팀에서도 유독 여리고 조용한 성격이던 그는 홀로 보낸 3년7개월과 앞으로 솔로 가수로 보낼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쉼 없이 쏟아내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핑크색 단발에 밝아진 성격

핑크색 단발 헤어스타일, 4kg을 찌워 균형을 맞춘 164cm 47kg의 늘씬한 몸매, 무엇보다 밝아진 성격은 공백을 보내며 몰라보게 달라진 변화다. 2009년 '노바디'로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뒤 귀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 소속사 관계자와 팬들을 당황하게 했던 것을 떠올리면 다른 사람이 됐을 정도다.

"그땐 많이 어렸어요. 내적으로 덜 성숙했던 시기라 활동이 버겁게 느껴졌었죠. 미국에서 받았던 큰 관심과 부담, 빌보드에 이름이 올랐던 감격, 고생했던 순간 등 여러 기억이 한번에 떠올라 눈물이 났어요."

최고의 걸그룹 멤버로 전성기를 보내던 2010년 1월 갑작스럽게 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배경에 궁금증이 쏟아졌다. 스캔들, 회사 내부 관계 등 미확인 루머도 마구 쏟아졌다.

"저도 다 봤어요. 루머는 루머일 뿐이죠.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감수해야 할 일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어요. 진짜 이유는 초심을 잃은 것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어요. 눈앞의 것만 좇는 가수가 되고 싶진 않았죠. 원더걸스의 존재감 없는 멤버, 그냥 귀여운 멤버 정도가 저의 위치더라고요. 나를 다시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은 언젠가는 필요했을 거예요."

3년간의 원더걸스 활동을 끝낸 그는 동국대 연극학부 대학생이 됐고, 동시에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다시 예비 가수의 길을 걸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렸다고 두려움은 없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수가 될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죠. 다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면서 미래에 대한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감각적인 사랑 노래하다

지난해 12월 박진영 PD는 솔로를 제안했고, 3월 곡을 완성했다. 지난달 이미 선미만을 위한 노래·춤·스타일링·뮤직비디오·콘서트 등이 완벽히 준비됐다. 26일 솔로 데뷔곡 '24시간이 모자라' 음원 발표에 앞서 공개된 티저 이미지, 20일 출시된 뮤직비디오는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운드는 남자를 통해 감각적인 사랑에 눈을 뜬 여자의 마음을 담은 댄스곡으로, 선미는 뮤직비디오에서 연기와 춤으로 가사를 직접 표현했다. 초반에는 처음 느껴본 사랑에 점차 빠져드는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감정, 후반으로 갈수록 사랑에 목마른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진다.

"제 나이에 맞게 점차 여자가 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풋풋한 섹시함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과하지 않게 표현해야 하는데 섹시한 노래 분위기에 빠져 연기한 나머지 박진영 PD님이 저를 자제시키기도 했어요. 재킷 사진에서는 눈빛이 도발적이고 포즈가 너무 야하다고 재촬영을 했죠. 원더걸스 때에는 어리기도 했지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공백기 동안 잠재된 것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원더걸스의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벗은 그는 "솔로 가수 선미 앞에 '섹시 가수'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기분 좋을 것 같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김아람

공백기는 나를 채우는 시간
재킷사진 너무 야해 재촬영
'24시간이 모자라' 연일 화제
이제부터 시작이죠

star bag

中 영화 'PK퀸카' 주연 캐스팅

손태영이 중국 영화 'PK퀸카'에 출연한다.

이 영화는 일과 사랑에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커리어우먼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로, 손태영은 주인공인 방송사 PD 우위엔 역을 연기하기 위해 28일 중국으로 떠난다.

다큐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출연

걸그룹 미스에이의 중국인 멤버 **페이**가 KBS1 다큐멘터리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에 출연한다.

21일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페이는 최근 조국 윈난성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아 일주일간 초등학교 교생으로 지내며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드라마 '주군의 태양' OST 콜라

걸그룹 씨스타의 **효린**이 SBS '주군의 태양'의 OST '미치게 만들어'를 불렀다. 21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프로듀서 일렉의 곡으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과 효린의 가창력이 조화를 이룬다. 이날 낮 12시에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26일 첫 내한… 녹화·화보 촬영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톱모델 **바바라 팔빈**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파리 측은 21일 팔빈이 26일 내한해 3박4일 동안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 '하임 슈너보델'의 녹화와 패션 월간지 화보 촬영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주 |목| 밤 11시 tvN 방송

소속사 대표 사칭 SNS 피해··'일베' 논란에 출연 취소

크레용팝 '인기 몸살'

파빠빠 열풍을 일으킨 이색 걸그룹 크레용팝이 극심한 인기 몸살을 앓고 있다.

연일 인터넷상에 크레용팝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를 사칭한 SNS 계정까지 등장해 소속사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결국 강경 대응에 나섰다.

20일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 황현창 대표가 사용하던 트위터에 "돼지 같은 대중의 응알이는 무시하기로"라는 글이 올라와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이 트위터 계정은 황 대표가 이미 탈퇴한 것으로, 황 대표를 사칭한 이용자가 같은 아이디로 재가입해 오해를 부추긴 것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앞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와 관련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크레용팝이 일베에서 고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표현으로 쓰는 '노무노무' '쩔뚝이' 등을 사용하면서 벌어졌다.

네티즌의 항의가 거세지자 아들을 모델로 기용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광고를 중단했고, 2013 달라이트 어반그라운드 콘서트를 개최하는 삼성전자는 출연을 취소했다. 프로축구 FC서울은 28일 예정 경기의 크레용팝 시축을 취소했고, 크레용팝은 축제에 섭외된 10여 개 대학들도 출연 여부를 놓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정우성·안성기·이범수·이시영·김흥권(왼쪽부터)이 액션 누아르 '신의 한 수'에서 호흡을 맞춘다

'신의 한수' 라인업의 한수

정우성·안성기·이시영 등 화려한 멀티캐스팅··· 내년 상반기 개봉

새 영화 '신의 한 수'가 화려한 멀티 캐스팅으로 멋진 출발을 예고했다.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미디어플렉스는 21일 "주인공 태석 역의 정우성은 비롯해 국민배우 안성기와 이범수·김인권·이시영·안길강·최진혁이 호흡을 맞춘다"고 전했다.

3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감시자들'의 흥행 성공으로 건재를 과시한 정우성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들에게 복수를 꿈꾸는 선적 바둑선수 태석으로 변신해 특유의 감성적인 액션 누아르 연기를 선보인다.

안성기는 맹인 바둑 고수 주님 역으로, 이범수는 태석의 복수 상대인 사기 바둑꾼 살수 역으로 각각 합류한다. 특히 안성기와 이범수는 2001년 '무사'와 1999년 '태양은 없다' 이후 각각 12·14년 만에 정우성과 재회한다는 점에서 영화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파 김인권과 안길강은 태석을 돕는 꽁수 역과 사기 바둑꾼의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는 꺼목수 역에 각각 캐스팅됐다. 이 밖에 이시영과 드라마 '구가의 서'로 주목받은 최진혁은 극중 살수의 파트너인 배꼽과 오른팔인 선수로 긴장감을 더한다.

조범구 감독이 '뚝방전설'과 '퀵'에 이어 세 번째로 메가폰을 잡는 이 영화는 이달 말부터 촬영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개봉될 예정이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1888년 런던, 그 땐 낭만이 있었다

Jack the Ripper

MUSICAL

잭 더 리퍼

8월 22일 2시 마지막 티켓오픈!

2013.7.16~9.29 디큐브아트센터

www.jacktheripper.co.kr

청춘예술가 실험작품 한자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독립예술축제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3이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을 찾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홍대 앞 창작 공간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열린다. 106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극·신체극·무용·음악·복합 장르·퍼포먼스·전통연희·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일상과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 명작의 재해석, 장르와 표현 방식의 실험, 철학 또는 사회와 연계, 이색 장르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축제답게 경향성도 다양하다.

기획 프로그램으로는 철 지난 바캉스, 밤샘 그런 ... 희망의 시도, 희망의 노래, 숍 포 호프 프로젝트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학술행사, 시민 대상 프로그램,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자세한 축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seoulfringefestival.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외 공연과 일부 기획 프로그램은 무료다. 문의 02)325-8150

/박진현기자

차세대 지휘자 멘토 나선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지휘 마스터 클래스' 참여 "완벽히 습득하려면 30년"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인 정명훈(사진)이 지휘자 양성에 나선다.

서울시향은 다음달 2일 미래가 기대되는 신진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정 감독이 직접 멘토로 나서는 '지휘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

박준성·백윤학·서진·최수열·홍석원·리오 쿠오크만 등 서울시향과 공식 공연을 통해 호흡을 맞췄거나 해외 객원 지휘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여섯 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교향곡 1번을 각자 30분씩 지휘하게 되며, 정 감독은 그간 쌓아온 음악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할 계획이다.

21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 감독은 "오래전부터 미래를 생각해 후배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60세가 된 올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 감사하다"면서 "일종의 오디션이다. 재주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지만 등장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처음 시작할 땐 쉬워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지휘다. 모든 지휘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려면 30년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처음 지휘를 시작할 때 미국과 프랑스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며칠씩 배웠다. 지휘자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운 것을 자기 요리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후배들을 향해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향은 이번 지휘 마스터 클래스를 매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박진현기자 lyk0127@metroseoul.co.kr

windbless@naver.com

뉴욕필 온다… 심장이 뛴다

다음달 4일 예술의전당서 내한공연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뉴욕필)의 단원들이 한국을 찾는다.

뉴욕필의 중견 단원 14명으로 구성된 실내 악단 '뉴욕필하모닉체임버오케스트라'가 다음달 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 '뮤지션스 프롬 뉴욕필'을 마련한다.

뉴욕필의 미니 오케스트라 격으로, 어려운 클래식을 친밀하면서도 격조 있게 보여주기로 정평 난 이 단체의 뛰어난 실력은 세계 각지에 잘 알려져 있다. 2008년에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오케스트라로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연주자 대부분이 뛰어난 솔로이스트이자 미국의 유수한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뉴욕필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다. 특히 이번 한국 나들이에는 뉴욕필 160년 역사상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발된 최연소 종신단원이자 제2바이올린 부수석인 리사김과 관악 파트 최초의 한국인인 손유빈도 함께한다.

/박진현기자

수원시립합창단 30돌 페스티벌 개최

수원시립합창단 역 창단 30주년을 기념한 합창 축제 '2013 수원합창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행사는 '우정의 하모니, 수원을 노래하다!'란 주제로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수원제1야외음악당, 수원제2야외음악당,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수원실내체육관 등 수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수원시립합창단과 수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원시연합합창단 등 약 1000명의 합창단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대부분의 공연이 무료로, 유료 공연도 비교적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31)228-2813

/박진현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ere do you live? 이웃과 대화하기

긴 대화 훈련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By the way, 벌써 아침 식사 한 거예요?
B Yes, I have. 두 시간 전에 아침 먹었어요.
A You get up to study English, don't you?
B Yes, I do. It's not that easy. 평생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말이죠.

정답 Have you had breakfast already? / I had breakfast two hours ago. / I've studied English all my life.

생생영어팁

▶ I'm still new here

저는 아직도 이곳에 많이 낯설어요

직역하면 '난 여전히 여기가 새롭다'는 뜻으로, 아직 적응하고 알아가야 할 것이 많아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I'm no stranger here라고 하면 '나는 이곳에 전혀 이방인이 아니다', 즉 이곳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I'm a stranger here라고 하면 '난 이곳이 처음이다'라는 뜻으로 누군가 길을 물을 때 자신도 그곳에 처음 와본 경우 할 수 있는 말입니다.

5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의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가 오면 목적격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v-ing를 쓸 수 있고, 사역동사가 오면 목적격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을 쓴다.

형태	주어+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	
주요 동사	지각동사	see ~가 …하는 것을 보다 hear ~가 …하는 것을 듣다 feel ~가 …하는 것을 느끼다
	사역동사	let ~가 …하게 허락하다 make ~가 …하게 만들다 have ~가 …하게 시키다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saw her dancing. 나는 그녀가 춤추는 걸 봤어.
2. I heard him talk. 나는 그가 말하는 걸 들었어.
3. My mom let me take a trip. 우리 엄마는 내가 여행가도록 허락했어요.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1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uron Energy, one of the nation's largest energy suppliers, delivers electricity to _______ twenty million customers.
(A) lightly (B) strongly
(C) nearly (D) similarly

02. _______ willingness to create custom-designed fabric has made local textile producer Desmond Finn very popular with movie set designers.
(A) Which (B) His
(C) Whose (D) Those

01 국내 최대의 에너지 공급업체 중 하나인 오론 에너지는 거의 2천만 명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한다.
해설 거의, 약 2천만 명의 고객들'이 적합하므로 (C) nearly를 쓴다. '약, 대략'을 의미하는 approximately, about도 답이 될 수 있다.
어휘 deliver 을 전달하다, 배달하다 electricity 전기 lightly 손 가볍게 similarly 유사하게
정답 (C) nearly

02 자신이 직접 주문 디자인된 직물을 기꺼이 만들어 지역 직물 생산업자 데스몬드 핀은 영화 촬영장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아졌다.
해설 명사 willingness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대명사 소유격인 (B) His를 써야 한다.
어휘 willingness 기꺼이 하는 마음 custom-designed 주문에 따라 디자인된 fabric 직물, 천 textile 직물, 천 movie-set 영화 촬영장
정답 (B) His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1 Read a text aloud

단어의 강세 법칙

■ 수식어의 강세 법칙

수식어구에서는 수식을 받는 단어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 부사 등은 문장에서 부가적인 표현이지만, 수식을 받는 명사의 경우는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단, '명사+명사'의 복합명사에서는 앞의 명사를 강조하여 읽는다.

▶ 형용사/소유격+명사: 명사 강조
It is the perfect **weather**. 완벽한 날입니다.
It is your **choice**.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 부사+형용사: 형용사 강조
It is very **close**. 그것은 매우 가깝습니다.

▶ 부사+동사: 동사 강조
I will gladly **answer** your questions. 저는 당신의 질문에 기꺼이 응답할 것입니다.

▶ 명사+명사: 앞 명사 강조
We will learn how to cook **pumpkin** pie. 우리는 호박파이 만드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박지성(왼쪽)이 AC밀란 수비수 칼리파 엑세스를 제치고 돌파를 시도 중이다 /AP 뉴시스

8년만의 복귀전서 동점골 견인…팬들 '위송 빠레' 합창

8년 만에 복귀한 '친정팀' 에인트호번의 홈 복귀전 경기장에 '위송빠레'가 다시 울려 퍼졌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인트호번이 21일 홈구장인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 강호 AC밀란과의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돌아온 옛 식구 박지성(32)을 앞세워 1-1로 비겼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한 박지성은 68분 동안 무려 8810m를 뛰어다니며 팀 공격을 주도했다. 전반 시작 7분 만에 감각적인 힐 패스로 동료와 중거리포를 도운 박지성은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15분 역습 상황에서 후방에 있던 수비수 제프리 브루마에게 공을 넘겼고, 브루마는 공을 받자마자 중거리포를 날렸다.

예상하지 못한 중거리포에 깜짝 놀란 상대 골키퍼가 제대로 잡지 못해 튀어오른 공을 마타우식가 머리로 밀어넣어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았다.

신볼 멤버를 가운데 박지성을 제외하고 챔피언스리그 출전 경험을 가진 선수가 단 두 명에 불과한 에인트호번에 박지성을 임대 영입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박지성은 후반 23분 플로리언 요제프준과 교체아웃됐고, 홈 팬들은 기립 박수와 더불어 '위송 빠레'(박지성 응원가)를 합창했다.

박지성의 옛 동료인 에인트호번 필립 코쿠 감독은 "박지 통증으로 당초 후반전 교체 투입이 예상됐던 박지성을 선발 출장시킨 이유에 대해 "박지성이 어떤 선수인지 잘 알고 있다. 그가 꼭 필요한 경기였다"고 답한 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뛰어나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라며 칭찬했다.

에인트호번과 AC밀란의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은 무대를 옮겨 28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장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LG 선두 '1일천하'

삼성, SK 꺾고 선두탈환

NC 다이노스가 연이틀 전정팀 두산 베어스의 발목을 잡았다.

NC는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원정경기에서 이호준의 결승 솔로 홈런과 1경기 홈런을 터뜨린 이호준의 활약에 힘입어 두산을 7-5로 물리쳤다.

두산에 2연승을 거둔 8위 NC는 시즌 41승4무54패로 7위 KIA 타이거즈를 3경기 차로 압박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서울 라이벌 LG 트윈스에 설욕전을 펼쳤다.

넥센은 2-4로 끌려가던 8회말 터진 김민성의 역전 3점포에 힘입어 6-4로 승리했다. 넥센은 51승째(44패2무)를 거두며 두산을 2경기 차로 추격했다.

대전구장에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6-4로 이겼다.

삼성은 대구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박석민의 연타석 대포와 선발 배영수의 호투에 힘입어 9-6으로 승리하며 하루만에 1위 자리를 찾았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1일

■목동

LG	000	110	200	4
넥센	020	000	04X	6

[illegible]

■잠실

NC	010	021	030	7
두산	201	000	020	5

[illegible]

■대전

롯데	132	000	000	6
한화	000	004	000	4

[illegible]

■대구

SK	000	002	131	7
삼성	015	020	01X	9

[illegible]

푸이그 결승포 다저스 2연패 탈출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쿠바산 괴물 야시엘 푸이그(가운데 아래)가 21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4-4로 맞선 8회초 결승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팀 동료 후안 유리베(왼쪽)와 헨리 라미레즈(오른쪽)의 축하를 받고 있다. 10연승 뒤 2연패에 빠졌던 다저스는 이날 6-4로 승리하고 침체의 분위기에서 벗어났다. /AP 뉴시스

고려대 돌풍 어디까지…'프로 최강' 모비스 잡고 결승

돌풍의 고려대가 마침내 프로 최강 울산 모비스까지 잡았다.

고려대는 2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모비스와의 2013 KB국민카드 프로-아마 최강전 준결승에서 높이의 우세를 앞세워 73-72로 승리했다.

206cm의 1학년 센터 이종현은 2쿼터에서만 14점 5리바운드를 기록하는 등 27점 21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포워드인 엘리유 당연스까지 터뜨리며 선배들을 안도했다. 이종현 외에 국가대표인 문성곤(16점)과 이승현(6점 12리바운드)이 고른 활약을 했다. 반면 모비스는 문태영이 25점 11리바운드로 분전했으나 리바운드에서 25-50으로 열세를 보여 고려대 돌풍의 희생양이 됐다.

앞서 열린 또 다른 준결승 경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상무가 허일영(23점 6리바운드), 윤호영(20점 11리바운드) 콤비를 앞세워 서울 SK에 75-61로 승리했다. 결승은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유순호기자

이대호 19일 만에 19호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의 이대호(31)가 19일 만에 손맛을 봤다.

이대호는 21일 후쿠오카 야후오쿠돔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해 1-0으로 앞선 4회 1점 홈런을 때렸다. 2일 지바 롯데와의 경기에서 18호 홈런을 터뜨린 이후 다시 거포 본능을 되찾았다.

지난해 24개 홈런을 친 이대호는 2년 연속 20홈런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릭스는 이대호의 홈런과 선발 가네코 치히로의 완봉 역투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해 2연패에서 탈출했다. /유순호기자